

「모란봉」에 나타난 근대 도시의 표상

엄숙희(전북대)

<목 차>

1. 서론 : 근대 도시 공간의 형성
2. 「모란봉」에 나타난 근대적 도시 공간
 - 1) 서구의 근대 대도시, 샌프란시스코
 - 2) 전근대적인 근대 도시, 평양
 - 3) 근대적 일상의 중심도시, 인천경성
3. 결론

<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모란봉」 속 개화 공간에 나타난 근대 도시의 표상을 살펴 보고자 했다. 당시 신소설이 근대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개화기의 근대 도시 공간을 중심으로 조선 민중들의 일상적 삶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다른 신소설 작품에 비해 공간 이동이 두드러진 이인직의 「모란봉」을 대상으로 인물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며 근대 도시의 표상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모란봉」 속 인물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며 작품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평양, 인천, 경성을 살펴본 결과, 샌프란시스코의 여유롭고 한가로운 근대 대도시의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조선의 근대 도시들은 일본의 근대기획에 의해 빠르게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양상으로 근대 도시의 표상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었다. 「모란봉」에서 평양은 조선에서

가장 먼저 개화한 곳이면서도 전근대적인 사유방식이 공존하고 있는 근대 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었으며, 인천·경성은 각종 교통수단과 금융 제도 등 다양한 근대문물이 유입되어 근대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근대의 중심 도시로서 기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주제어 : 신소설, 근대 도시, 표상, 샌프란시스코, 평양, 인천, 경성, 모란봉, 대동강

1. 서론 : 근대 도시 공간의 형성

조선은 18세기 이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업이 발달하였다. 그러면서 경성을 비롯한 지방 도시들을 중심으로 인구가 몰산이 집중되었고, 이러한 상공업적 기반을 중심으로 한 도시 성장이 진행되었다. 이후 조선은 문호 개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근대 도시로의 발달이 이루어졌다. 즉 식민기획에 의해 새롭게 유입된 다양한 근대문물과 함께, 부산·인천·원산·진남포 등 개항장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이다. 당시 이렇게 급격하게 형성된 개화기의 근대 도시 공간은 이전 전통 공간의 지속과 변모가 한데 뒤섞인 것이었다. 따라서 개화기 근대 도시 공간의 생활양식도 전근대와 근대의 생활양식들이 혼용된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근대 도시 공간은 실질적인 장소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지닌다. 공간은 공간 구성원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인식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간이 지니는 표상의 의미는 받아들여지는 시대와 사회 그리고 문화에 따라 그 표상작용을 달리한다.¹⁾ 따라서 표상공간의 이미지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²⁾ 이러한 표상의 변화는 단기간에 형성되

1) 이효덕·박성관 역, 『표상공간의 근대』, 소명, 2002, 19~20쪽.

2) 이 말은 '표상 시스템'이 변용을 겪었다는 말이다. 표상을 표상이게끔 만들어 주는 사회문화적 표현코드에 돌이킬 수 없는 변동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즉 표상을 표상으로 떠받치는 코드와 그 사회적인 유통·순환의 시스템, 소위 표상 시스템(representational system)이 변용을 겪는다는 말이다. 사회문화적인 변동에 따라 표상 시스템이 있어 구성요소의 상호작용

는 것이 아니다. 공간 속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변화된 표상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는 과거의 표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 표상의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역사상 급격한 변화의 시기였던 개화기를 겪으면서 조선이라는 전통적 공간은 전근대적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이 시기에 새롭게 들어온 근대문물은 개화기 민중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들의 가치관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그러면서 개화기 조선에서는 근대적 공간으로의 변용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런 근대 도시 공간은 최근 문화연구의 영향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다양한 학문분야들을 통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경성을 중심으로 한 근대 도시 공간의 변화 양상, 일제 식민기획과 근대 도시의 관계, 기독교, 개항장 등과 근대 도시 형성과의 관계 등이 연구의 주제가 되면서 관련 연구 성과물이 생산되고 있다. 더불어 문학작품과 관련해서는 조선후기에 생산된 고전소설, 19~20세기 초의 가사, 20세기 초의 신소설과 이후의 근대소설 등을 통해서도 근대 도시 공간이 연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도 신소설 「모란봉」을 대상으로 근대 도시 공간의 표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화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난 신소설은 당시 조선 민중들의 일상적 삶을 통해 시대상을 그려내고 있다. 당시 개화기는 근대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근대적인 생활양식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소설은 근대 도시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갈등을 담아 내기도 했다. 그 갈등은 이념적이기도,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다. 본고에서 다룰 작품 「모란봉」은 개화계몽이나 자주독립의 문제보다는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실에 맞서 능동적으로 삶에 대처하며 살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과정이 다른 신소설 작품과는 달리 당대의 주요 근대 도시를 배경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본고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은 「모란봉」은 이인직이 매일신보(1913. 2. 5~6.3, 66회)에 연재한 작품이다. 「혈의 누」의 하편으로 보고 있는 「모란봉」은 「혈의 누」의 여주인공 옥련이 고향인 평양으로 돌아온 뒤에 전개된 사건을 중심으로 그려진다. 「모란봉」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개화계몽의 의지와 신지

이 변화하면서 표상을 표상으로 성립시키는 대상의 지각과 그 전달의 양태를 규정하는 코드에 변용이 생기는 것이다. (이효덕·박성관 역, 위의 책, 20쪽.)

식의 수용 그리고 선각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지의 여부에 따른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거대담론의 차원에서 이뤄진 논의였다. 그런 점에서 「모란봉」은 「혈의 누」의 하편 정도로만 인식되었고, 주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³⁾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고에서는 「모란봉」 속 작중 인물들의 일상에 주목하여 개화공간에 나타난 근대 도시의 표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모란봉」에 나타난 근대적 도시 공간

「모란봉」에서는 주요 인물들의 삶의 궤적에 따라 배경이 되는 도시 공간이 달라지고 있다. 이는 주인공 옥련이 평양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 옥련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화륜선을 타고 일본 횡빈(요코하마)에 도착하고, 횡빈에서 대판(오사카), 마관(시모노세키)을 거쳐 조선에 도착한다. 그리고 조선에 도착해서는 부산, 인천, 진남포를 통해 평양으로 들어가게 된다. 옥련이 거쳐 온 항구도시들은 당시의 주요한 근대 도시들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옥련은 평양에 머물고, 사건과 관련한 주요 인물들이 사건의 진행상 인천, 경성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인천과 경성은 당시 조선에서 개화의 중심역할을 하는 곳이다. 「모란봉」은 이런 식으로 인물들의 이동 경로를 통해 개화기 근대 도시의 면모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⁴⁾

-
- 3) 「모란봉」에 대한 논의는 「혈의 누」를 분석하면서 언급하는 정도가 주를 이루었다. 「혈의 누」가 당대 시대상에 부합하여 근대적 성격을 띤 소설로 인정받았던 점과는 달리 「모란봉」은 귀국 후의 옥련의 이야기 자체를 모순으로 지적(이용남, 『한국개화기 소설 연구』, 태학사, 2000, 75쪽)하면서 미학적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았다. 이는 권영민 등이 펴낸 『한국신소설전집』 이인직 편에서 「모란봉」을 다루면서도 비슷하게 언급되고 있다. 여기서 「모란봉」의 운명은 정론적 신소설이 문학예술의 전면에서 점차 후퇴하는 문학사의 전개과정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평하고 있다. (권영민·김종욱·배경열 편, 『한국신소설전집 02-은세계, 모란봉, 빈선량의 일미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216쪽.) 하지만 「모란봉」을 정론적 신소설이 후퇴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작품으로만 볼 게 아니라, 당시 개화기 민중들의 삶이 만들어낸 「모란봉」 속 근대 도시 공간의 이미지가 당대의 시대상에 다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4) 「모란봉」에서 그려진 이런 근대 도시의 면모는 다른 신소설이나 근대 소설 작품 등에서는 보기 드문 경우이다. 대개는 인물들과 관련된 사건 위주의 진행으로 공간보다는 사건 중심

1) 서구의 근대 대도시, 샌프란시스코

열요하기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의 야소교당 쇠북소리는 세간진루가 조금도 없이 맑고 고요하고 그윽한데, …(중략)… 천기청명한 일요일에 공원에 산보하러 모여드는 신사와 부인은 한가한 겨울을 타서 한가히 놀러온 사람들이다. 그 사람 모인 공원은 다시 열요장이 되어 복잡한 사회현상이 또한 이 가운데에 보이는데, 유심한 사진가가 전 사람의 자취 비밀히 감추인 것을 후인에게 전하려고 사진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취미 있는 진상을 가려서 막고 있는데, 열요한 사람들은 간단없이 활동이다.〔모란봉〕, 93쪽)

「모란봉」의 시작 부분이다. 샌프란시스코⁵⁾는 주인공 옥련이 평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잠깐 머문 곳이다. 샌프란시스코의 한가롭고 여유로운 공원 정경은 이후 작품에서 그려지고 있는 조선의 근대 도시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일찍이 금이 발견되면서 1860-1870년대를 거쳐 근대화의 길로 들어선 샌프란시스코는 20세기 초에는 이미 근대 대도시로 성장한 곳이었다. 그래서 당시 샌프란시스코는 ‘열요하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1849년 금이 발견되고 이어 은까지 발견되면서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후 과열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빠르게 급성장한 도시였기 때문이다. 「모란봉」 서두의 여유롭고 한가로운 샌프란시스코 정경은 근대화된 서구 이미지의 상징적인 제시라 할 수 있다. 이는 더불어 주인공 옥련이 돌아가야 하는 개화기 조선의 현실을 대조적으로 부각시키는 장치로도 볼 수 있다.

주인공 옥련이 아버지 김관일과 약혼자 구완서와 함께 머무르고 있는 공간을 따라가다 보면, 이들이 샌프란시스코의 근대적인 생활양식을 따르며 자연

의 서술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개화기를 거쳐 나온 근대소설의 경우,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천변풍경」 등의 작품에서도 당시 수도 경성의 경관이 드러나기도 하고, 김동인의 작품에서 평양의 이미지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모란봉」의 경우처럼 개화 초기의 다양한 도시 공간을 한 작품 내에서 그려내고 있는 작품은 보기 힘들다.

- 5) 태평양 해안 항구도시. 캘리포니아 주 중부 서해안 상공업 도시로 미국에서 14번째, 캘리포니아 주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이다. 1849년 금이 발견되면서 대도시로 급성장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렇게 근대 대도시로 성장하기 전, 1776년 스페인의 선교사들이 전도기지를 만들었던 곳이다. 이게 샌프란시스코 시의 시초이다. 이후 멕시코령이 되었다가, 19세기 중반 미국 영토가 되었으며, 그 뒤 금이 발견되면서 대도시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스럽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공원을 여유롭게 산보하고 있는 사람들, 사진사, “수정 가루 같은 물을 뿜어 올”리는 분수, 그리고 공원의 휴게소 등 개화기 신소설에서는 상당히 낯설었을 근대 도시 공원의 정경 속에서 옥련과 김관일, 구완서는 불편함 없이 한데 어울려 있다. 옥련이 유숙하고 있는 호텔에서조차 마찬가지이다. 세 사람은 각자 침소 하나씩을 정해 잠을 자고, 옥련은 침대에서 서양 소설을 보다가 영어 자전을 뒤적이기도 하고, 적적한 방에 환하게 켜 있는 전기등을 쳐다보기도 한다. 그러다가 놀러온 구완서와 침대 옆 테이블에서 “초인종을 눌러 보이를 부르”고, “커피차와 브랜드와 과자”를 갖추어 놓고 이야기를 한다. 구완서와 헤어지기 전날 밤 아쉬운 이야기를 마치고 난 방안의 옥련에게는 “자명종 시침 돌아가는 소리만 때각때각” 들린다.

이렇듯 「모란봉」은 지나쳐 보일 정도로 서구경관에 관한 묘사를 하나하나 정성들여 서사 곳곳에서 하고 있다. 주인공들이 가는 곳에서 그런 경관을 만난다기보다는 그런 경관을 그려내기 위해 주인공들이 그 공간을 따라가는 식으로도 보인다. 그럴 정도로 작품 초반의 짧은 분량에서 샌프란시스코의 다양한 근대 생활양식이 세세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공원에 있는 분수를 묘사하는 장면을 들 수 있다.

드뭇드뭇한 나무 틈에 허연 돌난간이 보이는데 그 돌난간 아래 돌연못이 있고, 돌 연못 가운데 사자형 섬이 있고, 사자 등 위에 금붕어 거꾸로 서서 수정 가루 같은 물을 뿜어 올려서 서늘한 기운을 드리었는데, 공원의 구경꾼은 못가에 몰려서서 돌난간에 의지하고 노는 고기를 내려다본다.(「모란봉」, 94쪽)

이런 식으로 서구의 근대적인 경관을 그려냄으로써 「모란봉」은 근대 도시의 중요한 표상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대 도시의 중요한 표상인 공원이나 호텔 등은 근대인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장소로서 기능하는 곳이기도 하다. 공원은 도시인들이 산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여행자가 늘면서 등장한 근대적 호텔은 여행자들에게 기본적인 쉼 곳을 제공할 뿐 아니라 여유 있는 도시인들이 휴식 겸 여가 생활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이런 도시의 부대시설은 근대 도시의 화려함이나 부의 척도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렇듯 「모란봉」 서두에서 그려지고 있는 근대 대도시 샌프란시스코의 여유롭고 안정적인 이미지는 조선의 개화기 현실과 대조되면서 근대 도시의 전형으로 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2) 전근대적인 근대 도시, 평양

「모란봉」의 공간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평양은 “조선에 제일 먼저 개화한 지방”이다. 고구려의 도읍지였던 평양은 근대에 들어 수난의 장소로 얼룩졌다.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으로 평양은 청군과 일본군의 전쟁터가 되었고, 술한 민중들의 주검을 넘고 들어온 일본 상인들은 무장 자위대까지 갖추고 상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평양의 근대 도시로의 진입은 이런 전란의 기억과 외세의 강제적인 압박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당시 일본은 평양의 지리적 조건에 대한 집착으로 평양 시장을 개방하는 개시 선언을 맘대로 선언하고 강제적으로 평양의 문호를 열었다.(1899년 11월) 전략적 요충지인 평양에 항구와 철도 등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고 그런 기반시설을 기반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빨리 개화가 진행되었다. 일인들에 의해 평양 성문 밖은 일본식 시가지가 꾸며지고, 평양 시내는 근대적 도시화⁶⁾가 이루어졌다.

평양이 일찍이 개화된 또 다른 요인은 주민들이 기독교를 널리 받아들인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실제 개화기에 평양은 기독교의 중심지였다. 청일전쟁(1894)의 주요 격전지였던 평양에서 교회가 민중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임이 널리 인정되면서 급속하게 교인 수가 증가했다.⁷⁾ 이후 평양은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을 시발점으로 1907년 평양 대 부흥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어⁸⁾있었기에 타 지역에 비해 개화가 빨리 이뤄졌다. 당시 조선인들에게 평양은 민족정신과 기독교 신앙의 거대한 성채로 받아들여졌다. 봉건 정부에 맞서 근대화와 서구 문물을 앞장서

6) 노형석 지음, 『한국 근대사의 풍경』, 생각의 나무, 2004, 197쪽.

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선교의 자유와 초기 선교활동」, 『한국기독교의 역사』 1, 기독교문사, 1989, 248~258쪽.

8) 이만열, 『한국 기독교사 특강』, 성경읽기사, 1987, 61~82쪽.

받아들였던 특유의 진보적 기질과 맞물려 서북인들은 평양을 근대화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면모를 가진 도시로 만들었다.⁹⁾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근대적 공간으로 변용된 평양의 모습은 「모란봉」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모란봉」에서 김관일 부녀가 평양에 이르는 여정은 근대화된 평양 공간을 보여준다. 김관일 부녀는 미국에서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 평양의 대동강 어귀에 있는 항만도시 진남포에 하륙하고, 이후 평양성 북문 내로 들어간다. 이들의 소식은 먼저 근대의 통신수단인 국제 우편으로 평양에 알려진다. 쉽고 빠르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전보¹⁰⁾는 당시 민중들이 누리고 있었던 근대화의 혜택 중 하나였다. 옥련의 부친 김관일이 미국에서 평양으로 보낸 전보는 부인에게 영어로 보낸 것이었고, 일본을 거쳐 올 때는 일어로 보냈으며, 한국에 와서는 언문으로 된 편지를 보냈다. 미국과 일본 간의 국제 우편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평양의 근대화된 우편제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¹¹⁾ 이런 근대의 우편제도는 봉건적 공동체의 폐쇄성을 무너뜨리고 정보의 전달을 용이하게 했다. 하지만 「모란봉」에서는 그런 우편제도가 정보를 미리 전달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란봉」에서 전보를 계기로 촉발된 장옥련의 사건은 앞으로 김옥련이 맞이할 고난을 예견하는 결정적인 복선으로 작용한다. 미리 전보를 받고 김관일 부녀가 오는 걸 알고 있었던 옥련모는 평양에 살고 있었던 동명의 장옥련을 딸로 오해하게 된다. 여기서 장옥련은 상징적인 존재이다. 평양에서 나고 자란 장옥련은 아버지가 들인 첩에 의해 자신의 어머니가 억울한 모함을 받고 자살을 함으로써 실성을 하게 된다. 장옥련의 삶은 당시 다른 신소설에서 그려지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과 흡사하다. 신소설 속 여인들은 대부분 처첩간의

9) 이상록·이유재 엮음, 『일상사로 보는 한국근현대사』, 책과함께, 2006, 200쪽.

10) 짧은 개화파 선각자 홍영석에 의해 1884년 우정총국이 문을 열면서 시작된 우편제도는 정부가 시작한 최초의 근대적 행정체도로 자주적인 근대화개혁의 서막을 열었다. 1897년 전국 각 군 단위에 우체국이 설립되었고, 1900년에 400개 가까운 우체시설을 개설했을 정도로 근대 우편제도의 보급은 원만하게 진행되어 1900년 5월에 간략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편엽서제가 도입되었다.(노형석 지음, 앞의 책, 53쪽.)

11) 1884년 우정총국이 설치되어 근대 우편제도가 실시되었을 때 원래의 목적은 국내용보다는 외국과의 연락이 주목적이었다. (노형석 지음, 앞의 책, 52쪽.)

갈등 속에 놓여 있으면서 모함을 받거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장옥련은 당시의 여성들 삶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모란봉」에서 그려지고 있는 장옥련의 삶은 개화기 근대 초입이면서도 당대의 봉건적인 가족제도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면서, 또한 김옥련의 운명을 미리 암시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10여 년 간의 미국 유학생살을 하면서 근대적인 생활양식이 몸에 배었고, 근대적인 사유를 하게 된 옥련에게 평양이라는 전근대적인 공간은, 작품의 중간에서 옥련의 입을 통해 말해지는데, 한마디로 “장옥련이가 미쳤는데” 자신도 미칠 밖에 수가 없는 공간이다. 아버지 김관일과 10여 만에 평양집에 도착했을 때도 미친 장옥련 때문에 어머니는 김옥련을 김관일의 첩으로 알고 대동강 물에 뛰어들어 자살하려고 한다. 하지만 나중에 옥련을 사모하게 되는 서일순에 의해 자살이 실패로 돌아가고, 어머니의 자살을 계기로 옥련은 서일순과 엮이면서 고난을 겪게 된다. 평양에서 옥련을 맘에 둔 서일순과 이해관계 속에서 그 둘을 간계와 모략으로 엮어주려는 주변 인물들, 그리고 구완서와 약혼한 사실을 알고도 재력가인 서일순에게 시집보내려는 부모 등은 옥련에게 시련을 제공하는 인물들이다.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옥련은 능동적으로 자신 앞에 닥친 고난에 대처하지 못하고 끝없이 갈등하고 번민하는 것으로만 그려진다. 사실 평양은 근대화된 공간이면서도 봉건적인 질서가 공존하고 있어 옥련이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처럼 「모란봉」 속 평양은 개화기 당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일찍 근대화된 공간이지만 평양의 민중들은 아직도 여전히 전근대적인 생활양식을 따르고 있고, 그럼으로써 평양은 근대 도시 공간이면서도 근대와 전근대가 혼용되어 있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김관일 부녀의 귀향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모란봉」은 평양이라는 공간 내에서 배경의 이동이 두드러지는 작품은 아니다. 대신 평양의 주요 명소인 대동강과 모란봉이 상징적인 공간으로 그려진다. 사회·문화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공간의 의미 변화는 다른 공간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모란봉」의 대동강과 모란봉은 근대 이전과 이후의 평양의 달라진 표상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모란봉」에서 ‘산’이라는 공간 설정은 이인직 소설에서 자주 보이는 것으로

논자들의 주목을 끄는 부분이다.¹²⁾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모란봉¹³⁾은 「혈의 누」의 서두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공간이다.¹⁴⁾ 「혈의 누」의 서두에서 모란봉은 청일전쟁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렇듯 이인직의 작품에서 모란봉은 먼저 유서 깊은 명소의 상징에서 청일전쟁의 격전지로 표상의 변화를 겪는다. 이후 「모란봉」에서 그려지는 모란봉은 청일전쟁의 기억을 간직한 채 개화 공간으로 표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곳이 옥련이가 총 맞던 곳이런가! 이곳이 옥련이가 부모 이별하던 곳이런가! 이곳에서 십 년 전에 무수한 화폐를 당하였다니, 오늘은 이곳에서 이런 환영을 받는구나. 반갑다. 모란봉아, 십 년 풍상에 변치 아니한 것은 네로구나. 옥련이는 운수불행하여 십년 동안에 출몰사생하고, 동서양에 표박하다가 하나님도 도우시고 귀신이 도와서 고향에 돌아와서 네 모양을 다시 본다.”(「모란봉」, 125쪽)

「모란봉」에서 옥련의 부녀를 위한 환영식이 열린 곳은 모란봉이다. 평양에 돌아온 옥련 부녀를 위해 일주일 만에 평양성 내 유명 인사들이 환영회를 마련했으며, 그 장소가 모란봉이었다. 자칭 개화인들이 모여 환영회를 하는 공간인 모란봉은 청일전쟁의 격전을 겪은 후 개화의 중심 역할을 하는 개화인들의 공간으로 변모된 것을 볼 수 있다. 모란봉 연회장에는 “김관일을 알고 모르고 간에 구경삼아 온 사람이 많았”으며, 모인 삼백여 명의 회원들 중 ‘열개화꾼’은 “김관일의 앞으로 모여 앉아서 개화한 체하느라고, 각기 신지식을

-
- 12) 「모란봉」-모란봉, 「혈의 누」-모란봉, 「치악산」-치악산, 금강산, 화악산 「은세계」-대관령, 「귀의 성」-삼학산 등에서 산이 주요 공간적 배경을 이룬다.
- 13) 평양시 기림리에 있는 산. 높이 96m. 부근은 금수산(錦繡山)이라 부른다. 절벽을 이루고 있는 모란봉 아래 대동강 물 위에는 유명한 능라도(綾羅島)라는 하중도(河中島)가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 모란봉은 평양을 장식하는 공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반만년역사의 애화가 담긴 유서 깊은 명소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新韓國地理(姜錫午, 새글사, 1974), 平安南道誌(平安南道誌編纂委員會, 1980)(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http://100.naver.com/>)
- 14) 설성경은 『신소설 연구』(2005)에서 「혈의 누」의 주요공간인 모란봉의 의미를 두 가지 역할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사건의 시작으로서의 산의 역할과 반어적 예시 공간으로서의 산의 역할로 나누어 의미를 두고 있다. 이외에도 이인직 소설에 나오는 산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는데, 작품의 시작과 종결을 맺는 장소, 나라 형세를 상징하는 산, 만남이 이뤄지거나 중심사건이 처리되는 산 등으로 의미 분석을 하고 있다.

내어놓”느라고 바쁘다. ‘열개화꾼’들은 “미국은 땅 밑에 있다”거나, “미국은 해가 밤에 돋는다”거나, “서양 사람은 양의 자손인 고로 눈이 누르다”고 하며 김관일의 앞에서 어설픈 수작을 하기도 한다. 여기서 개화인 김관일과 김옥련을 보러 몰려든 평양 사람들이 당시 개화를 지향하는 평양 사람들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만들어낸 표상이 평양이라는 근대 도시의 표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 연회장 풍경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당시 평양 사람들이 개화인 김관일 부녀를 보러 몰려든 공간인 ‘모란봉’에서 최씨 부인이 난감해 하는 장면이다.

평양은 조선에 제일 먼저 개화한 지방이라 하나, 말이 개화이지 그 때 평양 부내 신사가 연회에 동부인 출석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만 김관일이 그 부인과 그 딸 옥련이를 데리고 온 터이라. 최씨 부인도 남만 못지 아니한 완고 부인이나, 그 남편과 그 딸 권함에 이기지 못하여 따라 나온 터이라. 평생에 남의 집 남자의 그림자만 보아도 피하여 달아나던 여편네가 홀지에 삼백여 명 신사 모인 곳에 와서 앉았으니, 환영받는 흥치는 조금도 없고 부끄러운 마음뿐이라. (『모란봉』, 118쪽)

김관일의 부인 최씨 부인이 난생 처음 여러 남의 집 남자 앞에 앉아 있게 되는 상황에서 당황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김관일과 옥련은 최씨 부인이 연회장에 함께 참석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남만 못지 아니 한 완고 부인”이기도 한 최씨 부인은 그 자리가 불편하기만 하다. 김관일 부녀가 처음 평양에 왔을 때 닦친 장옥련 사건과 유사한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조선에서 제일 먼저 개화한 평양이면서도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 개화한 이들도 있지만 전근대적인 사고체계를 지닌 채 급격하게 진행된 근대를 당황스러워하며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양의 명소 중의 하나인 모란봉 동쪽에 위치한 대동강¹⁵⁾이 근

15) 평안남도(平安南道)에 있는 우리나라 다섯째 가는 긴 강(江). 평안남도(平安南道) 영원군(寧遠郡) 소백면 동백산 및 소백산(小白山)에서 발원하여, 평양·진남포·황해도(黃海道) 황주 등지(等地)를 지나서 서해(西海)로 흘러들. 유역(流域)의 평야(平野)가 넓으며 수운(水運)도 편함. 평양 부근(附近)에는 모란대(牡丹臺)·부벽루(浮壁樓)·연광정(鍊光亭)·능라도(綾羅

대 도시 평양의 표상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당시 대동강변 주변도 근대화의 물결에 휩쓸려 개화가 빨리 진행된 곳이었다. 개화 당시 대동강변을 중심으로 공업도시가 형성되었고 대동강 하구는 화물선이 드나드는 곳이었다.¹⁶⁾ 것처럼 급격한 역사적인 변화로 인해 대동강은 이전의 명승지가 아닌 화륜선이 드나드는 개화된 공간으로 변모한다. 대동강과 관련해 작품 속에 제시된 공간은, 옥련이 부친과 함께 조선으로 돌아올 때 거친, 대동강 어귀의 향만도시 진남포이다.¹⁷⁾ 이곳도 청일전쟁 전에는 조그마한 어촌에 불과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후 청일전쟁을 겪고 나서 진남포는 병참선 기지가 되면서 유명해졌다. 그들 부녀는 이곳을 거쳐 평양성으로 들어간다. 이처럼 그들 부녀의 이동 경로는 대동강변을 중심으로 형성된 근대 공업도시와, 항구 등을 보여주면서 당시 근대적인 도시로 변모된 평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모란봉」의 주제경이 되고 있는 평양의 역사적인 장소들이 시대 변화에 따라 근대적인 도시 공간으로 변모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안의 인물들은 전근대적인 사유 방식으로 삶에 대처하고 있어, 대동강변에서 극단적인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운명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가 하면, 개화 공간에 익숙하지 않고 불편해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평양이라는 제일 먼저 근대화한 도시 공간에서 장옥련 사건은 당시 평양의 표상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었다. 근대적인 공간 속에서도 여전히 전근대적인 사유방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개화로 유입된 근대 문물이 오히려 그들의 운명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 등을 통해서, 근대와 전근대가 혼용된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근대적인 근대 도시 평양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島) 따위 명승(名勝) 사적이 많음. 지류(支流)로는 비류강·남강이 있음. 이 강 유역(流域)에서 고구려(高句麗)의 문화(文化)가 꽃을 피웠음.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http://100.naver.com/>)

16) 노형석 지음, 『한국 근대사의 풍경』, 생각의 나무, 2004, 199쪽.

17) 평안남도(平安南道) 남서단(南西端)에 있는, 대동강(大同江) 어귀의 향만(港灣) 도시(都市). 원래(原來)는 소어촌(小漁村)에 불과했으나 고종(高宗) 31(1894)년 청일(淸日) 전쟁(戰爭)과 더불어 일본(日本) 함대(艦隊)의 정막지(정막지·육군(陸軍)의 병참선 기지(基地)가 되면서 널리 알려졌음.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http://100.naver.com/>)

3) 근대적 일상의 중심도시, 인천·경성

평양이 전근대적인 근대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인천·경성은 근대 문물을 향유하면서 근대적인 일상을 보내는 도시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근대화된 대도시의 풍경과는 다르지만 「모란봉」이 나름대로 근대적 일상이 가능한 조선의 중심도시, 인천·경성을 통해 당대를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소설에는 교통, 통신 수단 등과 같은 근대문물이 많이 나타난다. 특히 개화기에 나타난 화륜선, 철도와 같은 교통수단과 우편 제도와 같은, 민중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준 것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런 근대 문물은 개화기 민중들의 삶의 공간을 확장했으며, 또한 생활의 질적인 변화도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모란봉」 속 인물들도 자연스럽게 근대 교통수단인 화륜선과 기차 등으로 공간을 이동해 가는 걸 볼 수 있다.

「모란봉」의 공간적 배경은 작품 후반에 이르러 평양에서 인천, 인천에서 경성으로 이동되고 있다. 인물들의 이들 공간으로의 이동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천과 경성은 당시 개화기인들의 근대적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인물들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이들 공간에서 인물들이 근대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모란봉」 후반에서는 재력을 갖고 있는 서일순에게 옥련을 시집보내려고 하는 서숙자와 최여정이 평양에서 인천을 거쳐 경성에 이르는 과정이 그려진다. 이들이 도착한 인천항의 모습은 활기차다.

인천항 저녁 빛에 흑운 같은 검은 연기를 토하며 살같이 들어오는 화륜선
화통 열어 놓는 소리에 인천상업계의 줄음을 깨뜨리는 어물전에 꼴뚜기 장사
가 먼저 날뚝뚝이, 밥장사나 하고 방세나 받아 먹는 여인숙 번두¹⁸⁾들이 잔판
의 배를 타고 정박한 화륜선에 들어가서 손님 마중을 하는데, 돈푼이나 잘
쓸 듯한 일등실 손님 앞으로 몰려가서 여인숙에 갈 손님을 찾는다.

키 크고 코 높은 서양 사람들은 모양도 곳곳 밋밋하거니와 행동거지도 또한

18) 병졸반의 우두머리에서 나온 말로 일종의 전문 경영인을 칭함.(권영민, 김종육, 배경열 편, 앞의 책, 174쪽) 「모란봉」에서 번두들은 일본인으로 묘사되고 있고 여인숙을 경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활발하여, 여인숙으로 가는 사람은 여인숙 번두의 안내를 따라 서고, 경인선 기차 타려는 사람은 화륜선 보이에게 짐만 내어 맡기고 잔판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깨끗하고 활발한 사람들 다니는 틈에 웬 양복 입은 남자와 조선 복색한 부인이 어릿어릿하고 서서 내려가고 싶으나 무엇이 못 미더운 일이 있어서 못 내려가던지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서 서로 쳐다보며 얼뜬 소리만 한다. (『모란봉』, 174쪽)

인천항은 ‘화륜선 화통 소리’가 힘차게 울리는 가운데 ‘번두’들과 ‘화륜선 보이’들의 부산한 움직임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883년 ‘제물포’란 이름으로 개항한 국제 도시 인천은 수도권의 쌀을 모아 수출하는 집산지가 되고, 청나라와 일본 국제 교역의 중심지로 새롭게 부각되면서 근대적인 시가지와 대형 갑문 등의 축항 시설이 들어서고, 20세기 초부터 ‘근대화 별천지’로 자리 잡았다. 이곳에 모여든 인간 군상들 또한 근대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부두의 중국인 쿠리¹⁹⁾와 조선인 하역 인부들, 인천 미두거래소의 야 바위꾼들, 공장지대의 하급 노동자들과 환락가 여급, 번두리 빈민 등 온갖 인간 군상이 탁류를 이루며 식민지 조선의 소용돌이를 요지경처럼 증언한 도시가 인천이었다.²⁰⁾

“인천 상업계의 줄음을 깨트리는” 화륜선의 기적소리는 부두 주변의 근대적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 활동을 개시하라는 신호로 작용한다. 번두들이나 화륜선 보이들에게 인간의 가치 기준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로 결정된다. 그들은 자신의 여인숙으로 손님을 이끌기 위해 “돈 뿐이나 잘 쓸 듯 한 일등실 손님”에게 접근한다. 근대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국제적인 개항 도시 인천의 첫인상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러한 화륜선과 기차와 같은 근대적인 교통망은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개인들의 사회적 경험까지도 변화시킨다. 서숙자와 최여정은 화륜선이라는 근대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 평양에서 인천으로 이동한다. 그들이 가져온 무거운 짐은 화륜선 보이가 여인숙까지 운반해 준다. 그들은 가진

19)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하층의 중국인, 인도인 노동자. 인천 부두 하역 작업을 했던 노동자들 중 중국 산둥성 출신 노동자들을 ‘쿠리’라고 불렀다.

20) 노형석 지음, 앞의 책, 243~244쪽.

돈으로 근대문물을 향유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들은 인천 여인숙에서 며칠 머물며 “돈을 개뿔 쓰듯 아까운 줄을 모르고” 쓰면서 국제적인 도시가 된 인천항을 돌아다니며 구경을 한다. 그렇게 며칠 인천항의 근대문물을 구경한 서숙자는 경인선 기차를 타고 경성으로 향한다. 여기서 최여정은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기로 하고 인천항에 남는다. 당시 인천은 국제적인 항만시설과 기차²¹⁾가 운행하고 있는 근대적인 도시였다.

개화기 당시 경성은 빠르게 신문물을 수용하면서 근대도시로 변모하며 근대도시로서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최여정과 헤어진 서숙자가 경인선 열차를 타고 가서 경성에서 내린 곳은 남대문 정거장²²⁾이었다. 기차는 당시 민중들의 삶의 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준 근대문물이다. 아득한 철로 위에서 기적 소리를 뿜으며 지나가는 행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했던 길을 단축시키고 자연의 장애를 넘어서 동일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는 사람이 맛볼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을 한껏 확장한 문물이다.²³⁾ 그러면서 기차는 다른 한편 무시무시한 존재이다. 거대한 몸체로 세상을 누비면서 이전에 있었던 삶의 질서를 짓밟는다. 기차가 지나는 길에 걸림이 되는 자연과 인조물은 모두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²⁴⁾ 작품에서 나온 남대문 정거장은 당시 경성역의 전신으로 1900년 7월 경인선 개통 때 현재 염천교 아래쪽에 지은 정거장이었으며 당시 경부철도²⁵⁾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경인선은 당시 조선의 쌀을 수집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건설된 철도였다. 또한 경부철도는 일본의 병참보급을 목적으로 건설된 철도였다. 철도는 조선 민중들이 경이로움으로 대하는 근대문물

21)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열차 운행은 사람들의 시공간에 대한 습관을 바꿔 놓게 했다. 분, 초, 단위로 움직이는 근대의 인위적인 시간 개념이 일상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는 새로운 질서로 등장했다. 이런 모습을 본 구한말 미국 의사 알렌은 “비록 승객이 양반이라 해도 기다리는 법이 없었던 기차가 곧 훌륭한 교육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쓰고 있기도 하다. (앞의 책, 27쪽.)

22) 정거장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동하는 곳이며, 이동 시간의 단축 등을 가능하게 하는 근대 문물이었으며, 도시의 여행객들에게 도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했다.

23) 권보드래, 『한국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0, 293쪽.

24) 위의 책, 293쪽. 일제는 1912년 기차길에 있는 묘를 파서 함께 이장하는 공동묘지 정책을 썼다.

25) 일본 정부는 경부선을 철저한 병참보급 철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군부가 19세기 말부터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러시아와 싸울 일본군 병참 수송로 확보의 교두보로 경부선을 점찍어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형석 지음, 앞의 책, 20쪽.)

이면서 또한 조선 민중의 삶을 저당 잡은 문물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또한 「모란봉」에서 보여준 이러한 거리의 교통수단은 예전과는 다른 분주하고 빨라진 생동감 있는 거리의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했다.

이런 근대적 일상은 화폐의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남대문 정거장에서 내린 서숙자는 구완서의 친척집을 방문해 어려운 살림에 보태라며 지전 백 원을 준다. 근대적 화폐가 등장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서숙자가 자기가 가진 돈을 제일은행²⁶⁾에 맡기는 상황 등은 근대적인 은행제도가 생활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근대적인 화폐제도의 도입과 은행제도의 도입은 근대적인 사회질서 확립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지리적인 경계에 상관없이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도시 공간의 이용 범위가 확장되고 용이해졌다. 이는 화폐의 기능 때문이다. 화폐가 지배하는 도시에서는 화폐의 가치에 따라 어디든 도달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거리와 상관없이 어디든 갈 수 있다. 따라서 근대 도시에서는 공간적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고 도달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²⁷⁾ 그래서 모란봉에서도 사건의 진행상 공간이 자연스럽게 인천·경성으로 이동된다. 인물들은 화륜선이나, 기차, 전차를 이용해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한다. 그래서 사건 진행상 공간의 문제도 해결된다. 처음에 옥련이 미국에서 평양으로 쉽게 올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근대교통수단에 의해 「모란봉」의 공간 구성이 자유로워진 걸 볼 수 있다.

「모란봉」에서 작중 인물들이 향유하고 있는 당시 근대문물들은 식민 지배하에서 일제의 의도된 목적에 의해 유입된 것들이면서, 또한 조선 민중들의 근대적 삶을 가능하게 한 것들이다. 그리하여 당시 문물들은 모순된 정체성을 지닌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들 문물은 본래의 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식민지배자인 조선에서 일제의 효용가치에 따라 유입·전파된 문물들이라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당시 조선 민중들은 개화기의 근대 중심도시에서 근대문물들을 향유하면서 나름의 근대적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볼 수

26) 1883년(고종 20) 일본의 제일국립은행 부산지점(1878년개설)이 인천출장소를 개설. 이들은 산업자본과 고리대자본을 육성하고 토지매입자본을 공급하여 일본의 경제적 침략을 도와 주었다. 특히 제일은행은 한국 쌀과 산금(産金)을 일본에 반입하는데 주력하며 해관세(海關稅)를 취급하는 등 본래의 업무를 넘어서는 일도 관여하였다.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http://100.naver.com/>)

27) 게오르크 짐멜/김덕영 윤미애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2006, 38쪽.

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실상은 기획된 근대도시 인천·경성이지만 그 안에서 근대적 일상을 영위하며 산 당시 민중들의 삶이 이들을 근대의 중심도시로 변모시킨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개화와 더불어 조선시대 말부터 진행된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개항장을 중심으로 근대 도시가 형성되었다. 당시 형성된 근대 도시는 급격한 성장을 하면서 전통 공간과 근대 공간이 한데 뒤섞인 공간이기도 했다. 따라서 개화기 근대 도시 공간에서의 생활양식도 전근대와 근대적인 것이 혼용된 것이었다. 그런 근대 도시 공간은 사회적인 의미를 함께 지니면서 공간 구성원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인식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따라 표상작용을 달리하게 된다.

개화기 당시는 근대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었고, 개화기의 시대상을 담아낸 신소설은 근대 도시 공간 속 사람들의 삶을 그려내기도 했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모란봉」은 당시 신소설에서는 드물게 근대적 일상이 가능한 조선의 중심도시들을 배경으로 인물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한 작품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작중 인물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며 「모란봉」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평양, 인천, 경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샌프란시스코는 당시 서구의 근대화된 대도시의 상징으로 그려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반면 여유롭고 한가로운 가운데 근대적인 생활양식을 영위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모습과는 달리 조선의 근대 도시들은 일본의 근대기획에 의해 빠르게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양상으로 근대 도시의 표상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었다. 당시 평양은 조선에서 가장 먼저 개화한 곳이면서도 전근대적인 사유방식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근대 도시로 성장해 있는 걸 볼 수 있었으며, 조선의 중심 도시인 인천·경성은 화륜선, 기차, 전차와 같은 각종 교통수단과 은행과 같은 금융 제도 등, 다양한 근대문물이 유입되어 근대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근대의 중심 도시로서 기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참고 문헌〉

- 권보드래, 『한국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0.
- 권영민·김종욱·배경열 편, 『한국신소설선집 02-은세계, 모란봉, 빈선량의 일미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김교봉, 『근대전환기 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6.
- 노형석 지음, 『한국 근대사의 풍경』, 생각의 나무, 2004.
- 설성경, 『신소설 연구』, 새문사, 2005.
- 이만열, 『한국 기독교사 특강』, 성경읽기사, 1987.
- 이상록·이유재 엮음, 『일상사로 보는 한국근현대사』, 책과함께, 2006.
- 이용남, 『한국개화기 소설 연구』, 태학사, 2000.
- 이효덕·박성관 역, 『표상공간의 근대』, 소명, 2002.
- 조미숙, 『현대소설의 인물묘사 방법론』, 박이정, 1996.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선교의 자유와 초기 선교활동」, 『한국기독교의 역사』, 기독교문사, 1989.
- 홍선표, 『근대의 첫경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 게오르그 루카치, 박정호, 조만영 옮김, 『역사와 계급의식』, 거름, 1999.
- 게오르그 짐멜/김덕영 윤미애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2006.

〈Abstracts〉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 of Modern City Represented of Mo Ran Bong

Um, Suk-Hui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presentation of modern city represented of Mo Ran Bong. In the time of enlightenment, various genres of literature appeared. These literatures contain drastic social changes. Shinsosul is a representative genre among them. Thus Shinsosul contained the image of modern city through people's daily life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time of enlightenment. Therefore this study had an interest in modern city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time of enlightenment of Mo Ran Bong. So this study looked at the representation of modern city represented of Mo Ran Bong in the enlightenment space.

This study analyzed the migratory routes of peoples such as San Francisco, Pyeongyang, Incheon, Kyungsung of Mo Ran Bong. Thus this study got this result that the various representation of modern city had been made in the enlightenment space. First of all, this study drew a conclusion that San Francisco's representation was very laid-back as a modern metropolis in Mo Ran Bong. And concluded that Pyeongyang which was the first city that opened the door to Western civilization had a modern city's representation with characteristics of premodern thinking. Finally, This study drew a conclusion that Incheon and Kyungsung which since the late 19th century, western civilization has been flooding into

there, has been become the modern center city.

Keywords : *Mo Ran Bong*, Modern City, representation,
Shinsosul, San Francisco, Pyeongyang, Incheon,
Kyungsung

이 논문은 2010년 8월 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1년 2월 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1년 2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